

#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 경계의 삶과 국민 되기의 노력으로서의 혁명서사1)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

이해영(중국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 목차

1. 1980년대 재중 조선인 디아스포라 혁명서사의 의미
2. 1960, 70년대 중조관계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
3. 은폐된 기억 호출하기와 새로운 민족관계의 구축
4.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조선인의 혁명적 연속성
5. 결론

### 1. 1980년대 재중 조선인 디아스포라 혁명서사의 의미

오늘날 외부에서 흔히 ‘재중 조선인 디아스포라’ 라고도 불리는 중국 조선족은 광복직후,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고 중국 동북지역에 잔류한 중국 이주 조선인 1세대 내지 그 후대들이다. 1945년 광복직후,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 230여만명 중, 근 40%에 달하는 80만명이 귀환하였고 근 60%에 달하는 130만명이 귀환을 포기하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잔류를 선택하였다.<sup>2)</sup> 그 잔류를 선택한 130만명에 달하는 조선인은 중국 땅에서 4년간의 국공내전을 겪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 즉 중국 국민으로 되었으며 1952년 9월, 조선인 집거지역인 ‘간도’ 즉 연변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되었다. 그러나 공민권의 획득이 곧바로 ‘국민 되기’의 완성이 아니었음은 훗날 중국 현대사의 흐름과 그 와중에 재중 조선족이 겪은 다난했던 역사의 굴곡이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경계인으로서 중국 조선족은 국가와 민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해야 했는데 그것은 때로는 스스로 심정적 거리를 조절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때로는 건국 이전의 민족의 역사 만들기의 과정이기도 했으며 국가의 요구에 ‘국민답게’ 스스로를 맞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sup>3)</sup> 그렇게 조선족에게는 ‘혁명서사’가 필요했고 그때마

1) 本文系2016年国家社科基金一般项目“当代朝鲜族文学中的革命叙事与国家认同研究”(批准号:16BZW179)的阶段性成果. 이 논문은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해외한국학중핵대학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OLU-2250004).

2) 광복전 중국 동북지역(만주)에는 약 230만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광복과 더불어 약 80만이 한반도로 귀환하였고 130여 만의 한인들이 남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춘선, 「광복후 중국 동북지역 한인들의 정착과 국내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2004년 봄호 제28집), 181면 참조.

3) 이 문제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전에 이미 대두되었다. 국공 내전 시기, 해방구였던 중국 동북지역의 토지개혁 와중에 동북 잔류 조선인의 국적문제가 첨예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대한 잔류 조선인이자 연안 출신의 중국 공산당 간부 주덕해와 중국 한족 출신의 중공연변지위서기 유준수의 발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당시 조선인 출신의 중국 공산당 간부 주덕해는 《동북에 온 조선족은 거의 모두가 농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기 민족의 력사에 대해 허무주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자기가 이 나라 공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기가 이 나라의 공민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토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자격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고 정치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고 한족 출신의 중공연변지위서기 유준수는 동북 잔류 조선인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여 토지를 나눠주고 중국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며 조선인들로 하여금 해방전쟁(국공내전의 중국 측 용어)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성위와 중공중앙에 건의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국민권 즉 공민권 획득에 대한 조선인 스스로와 국가가 서있는 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해영, 「중국 조선족의 선택과 조선인 간부들의 역할-조선족의 장편

다 방대한 양의 혁명서사가 창작되었다. 통상 ‘개혁개방의 시대’, ‘다원화의 시대’, ‘탈이념의 시대’로 불리고 있는 1980년대에 문단의 역류현상이라고 불릴 만큼 대량으로 집중적으로 창작된 1980년대 조선족의 혁명서사 역시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족이 중국 역사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정립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특히 1980년대의 조선족의 혁명서사는 중국 건국 초기였던 1950, 60년대의 혁명서사와는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양적으로 방대하며 제재 역시 이민서사, 국내혁명시기 서사, 항일서사, 국내해방전쟁서사 등 조선족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무려 15편에 이르는 장편소설이라는 수적으로 방대한 혁명서사의 집중적인 출현은 모종의 의미에서는 “개혁개방의 시대”라는 1980년대의 공적인 수사를 무색하게 할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조선족 문학사는 “개혁개방의 시대”라는 공적인 수사에 치우침으로써 그러한 문단의 역류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조선족 문단을 압도하는 혁명서사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략하게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문혁이라는 정치적 동란의 와중에 형성된 중앙의 눈치 보기의 관성으로 인한 산물 내지 중앙의 개혁개방 시책에 대한 때늦은 이해로 인한 시대 역행의 산물로 인식되었으며 조선족 문단의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중국화’의 현상으로 인식되었다.<sup>4)</sup>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유사 건국 서사 다시 쓰기’ 내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를 다시 쓰기 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를 단순히 조선족 문학의 ‘중국화’ 내지 1950, 60년대에 나타났던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를 ‘다시 쓰기’한 것으로 보기에는 다분히 무리가 따른다. 위에서 서술했다시피 1980년대 혁명서사는 건국 초기였던 1950, 60년대에 비해 양적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중국 경내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족의 혁명투쟁사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망각 내지 기피해왔던 청산리전투, 봉오동전투 등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독립투쟁도 기억하고 복원하고 있다.<sup>6)</sup> 또한 1950, 60년대 혁명서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조선족의 민족적, 역사적 특수성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일례로 리근전의 장편소설 『범바위』의 창작과 개작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1962년 출간된 『범바위』의 초판본은 광복 직후, 만주의 조선인<sup>7)</sup>이 직면한 선택의 문제를 공산당과 국민당 노선에 대한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소설과 조선인 간부들의 회고록과의 대비를 통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4, 296~297쪽.

4)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 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123~124쪽 참조.

그러면서도 이광일은 실재했던 조선족의 혁명투쟁사에 대한 문학적 재현이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자신감과 자부감을 굳히고 특히 기타 민족에 비해 중국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조선족의 자격과 그 가능성을 문학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5) 서령, 「중국 조선족문학의 ‘중국화’ 문제-김학철과 윤일산의 전쟁제재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3집, 2014.5, 177~178쪽 참조

6) 이광일, 위의 책, 206~208쪽 참조. 1980년대의 혁명서사가 조선족의 혁명투쟁사 전체에 걸쳐 있는 점에 대해 이광일은 “제재 면에서 이채를 띤다”고 서술했으며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서’라는 패턴을 깨고 민족적인 시각에서 역사를 재조명하였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우리의 작가들이 좌적이고 경직된 사유방식에서 해탈되어 주체적인 안목을 갖고 조선족의 혁명투쟁사를 다시 바라보는 자세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그 의의를 부여하였다.

7) 중국 조선족이 정식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인정받은 것은 1952년 중국조선민족자치구 성립이후부터로 봐야할 것이다. 그 이전에는 ‘조선인’으로 불리기도, ‘조선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실제로 광복직후인 1945년 9월, 중공중앙 동북국은 “동북지역의 조선민족을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한다고 공포하기도 하였다.(김춘선, 『재만 한인의 국적 문제 연구』, 『귀환과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삶』 (이해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02), 경진출판사, 2011, 33면) 본고에서는 대체적으로 195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조선

서사화함으로써 광복직후 만주의 조선인은 중국 내 타 민족과 별다른 차이를 지니지 않은 채 일반화된 중국 국민의 범주로 수렴된다. 그런데 1986년 리근전 자신에 의해 개작, 출간된 『범바위』 개정판은 광복 직후, 만주의 조선인이 공산당과 국민당 노선 이외에도 한반도로의 귀환이라는 특수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다고 서사화함으로써 일반화된 중국 국민의 범주로는 수렴할 수 없는 광복 직후 만주 조선인의 민족적, 역사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다.<sup>8)</sup> 이는 모종 의미에서는 민족의식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86년에 발표된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은 중국에 잔류하여 중국 국민이 된 조선족과 한반도로 특히 남쪽으로 귀환한 만주 귀환 동포 모두에게서 망각과 기피, 은폐의 대상이 되어버린 만주국 시기 일제의 ‘토지 수용령’과, 그로 인해 만주국 시기부터 형성된 중국 동북지역 한족과 조선족의 뿌리 깊은 갈등에 대해 정면으로 서사화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민족의식의 확장 내지 잊혀져버린 민족사의 재 기억 혹은 고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결여한 채, 그리고 1980년대 혁명서사에 대한 본격적이고 상세한 검토를 결여한 채 조선족 문학의 전면적인 ‘중국화’ 등 자의적인 결론에 이르고 있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여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sup>9)</sup>을 중심으로 문학을 사이에 두고, 재 호출된 1980년대의 혁명서사가 1950, 60년대와는 어떤 변별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은폐된 기억의 호출, 과거 고백의 방식과 민족의식 확장의 내적 논리 등을 중심으로 이러한 1980년대 혁명서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조선족 문학의 ‘전면적인 중국화’ 내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를 ‘다시 쓰기’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1980년대에 조선족 문단에 왜서 혁명서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는지, 왜서 그러한 문단의 역류현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1960, 70년대 중조관계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

1950, 60년대에 나타났던 혁명서사의 재 호출이면서 이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1980년대 혁명서사의 특징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 사이에 가로놓인 흔히 문혁 혹은 정치적 동란기로 일컬어지는 1960, 70년대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 그 속의 조선족 사회를 살펴보아야 한다.

1960, 70년대에 중국 전역을 휩쓴 문화대혁명의 광기는 중국의 외교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문화대혁명시기 중국의 외교는 특수하면서도 비정상적인 대외활동이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초기, 중소분쟁과 반제국반수정(反帝反修)의 색채가 더욱 농후해지면서 미소와 동맹 및 밀접한 국가에게 “미제국주의의 주구, 패거리”, “후루시초프의 주구, 패거리” 등으로 노골적으로 비난하였으며 이러한 혁명외교노선으로 하여 1966년부터 1967년에 중국과 외교관계에 있던 48개 국 중 30개 국과 외교 분쟁이 발생하였다.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홍위병의 중국외교부 및 외국공관에 대한 공격도 이루어져, 중국이 사회주의정당에 혁명노선을 전수하려고 하면서, 사회주의권에서도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sup>10)</sup>

1964년 10월 14일, 흐루시초프의 실각과 함께 들어선 새로운 소련 지도부에 대한 평가에 서부터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sup>11)</sup> 북중갈등은 1967년 홍위병의 김일성 공격으로부터 본격화

인’으로 그 이후는 ‘조선족’으로 표기하되 1952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소수민족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작동하는 경우에는 ‘조선족’으로 ‘조, 한 두 민족’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8) 이해영, 『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73~93쪽 참조.

9) 윤일산, 『포효하는 목단강』, 연변인민출판사, 1986.

10) 박종철,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 63권 0호, 2015, 108쪽 참조.

되었으며 이는 당시 중국혁명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는 일반적인 패턴이었다.<sup>12)</sup> 그러나 북중 갈등은 중국과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에 비해서 중국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핵심문제로 떠올랐으며 중국인민들에게는 감정적 차원과 직결되는 체험적 수준의 것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북한은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 두고 국경을 인접하고 있으며 양국의 지도층은 항일전쟁 중, 공동의 항일투쟁과 혁명 경험으로 인해서 동지적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우의는 일제 패망이후 국공내전시기 동북전역에서도 이어졌다. 사회주의권 국가로서 북한과 중국과의 동맹관계가 혈맹의 관계<sup>13)</sup>로 한층 강화된 결정적 계기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중국의 조선전쟁에의 지원군 파병이었다. 중국의 참전과 지원군 파견으로 북한은 미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의한 패퇴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중국 역시 조선전쟁에의 지원군 파병으로 막대한 희생과 피의 대가를 치렀는데 그 대표적인 실례로 중국인민지원군 지휘부의 러시아어 통역 및 참모로 참전했던 모택동 주석의 큰 아들 모안영의 희생과 근 17만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포함한 36만명에 달하는 인력손실을 들 수 있다.<sup>14)</sup> 당시 중국은 장기간의 대일전쟁과 내전을 거쳐 새중국을 건립한지 1년도 채 안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피폐해있었고 군인들과 인민들사이에 염전사상이 만연해있었으며 중국 지도부 역시 참전 여부를 놓고 심각하게 의견상이를 보이다가 모택동과 주은래 등에 의해 최종 출병론이 확정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 즉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 ‘항미원조전쟁’에 용약 참가하여야 하며” “나라 없이 집이 없다”는 전쟁동원의 논리로 전국 각 계, 각 층 인민들과 애국공약 등을 맺어가며 인민들을 광범위하게 조선 전쟁에 동원하였고 조선전쟁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 북한을 돕는 것이자 자기의 가정과 나아가 새중국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는 담론을 만들어나갔다.<sup>15)</sup> 그러므로 “항미원조” 즉 조선전쟁은 막바로 중국인민 전체의 전쟁이 되기도 했으며 중국인민들은 조선전쟁에 대한 참전을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지원”이나 혹은 “북·중 간의 특별한 혈맹적 동지관계”로 기억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인들에게는 중국과 기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 비해 훨씬 실감나는 체험적 수준의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혁명을 수입하고 지도 받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했던 수직상하 관계로 인지되었던 사회주의대국 소련과의 관계와도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상호지원” 내지 조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대국 소련과의 분쟁 중이라는 당시 중국으로서는 최대의 위기 상황 중에서 매우 중대한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중국 지도층의 비상한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북한은 50년대 말부터 갈등을 보이기 시작한 중소분쟁 초기에는 소련을 비난하고 중국을 적극 지지했으며 거의 매년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고위층의 중국 방문 및 모택동, 유소기, 주은래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의 면담이 이루어질 정도로 중국과 그야말로 밀월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중국지도부는 중·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던 북한을 배려하여 1962년 10월

11)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도서출판 : 중심, 2001, 237쪽.

12) 박종철, 위의 논문, 109~110쪽.

13) 이종석, 위의 책, 193쪽.

14) 姚旭, 「抗美援朝的英明決策」, 『黨史研究』 1980年第5期, 이홍영 옮김,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 현명한 정책」, 『중소연구』 제8권 4호(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84/5 겨울), 이종석, 위의 책 191~192쪽 재인용.

15) 이해영, 「이태준과 『위대한 새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59권0호, 2016, 216~227쪽 참조.

12일과 1964년 3월 20일에 각각 체결된 “중·조 국경조약”과 “중·조 변계의정서”에서 북한에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하였다. 또한 1964년 북한과의 갈등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무렵부터 중국은 주은래 총리가 직접 북한측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정도로 북한과 중국 관계에 관심을 기울였다.<sup>16)</sup>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결정적으로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은 말 그대로 배신과 분노였다. 1967년, 홍위병들은 김일성과 북한을 수정주의로 비판하였으며 “조선전쟁에서 중국이 북한을 도운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하였다.”<sup>17)</sup>

중국의 문혁 중, 북중관계의 악화는 중국 내 조선족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연변의 문혁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회고록 내지 자서전들로는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 7- 『풍랑』<sup>18)</sup>중의 「걸출한 정치활동가 주덕해」, 「반우과투쟁과 민족정풍운동」, 「《문화대혁명과》과 조선민족」, 『주덕해의 일생』, 『고향 떠나 50년』, 『조남기전』 등이 있는데, 이들 기록물들에는 “조선(북한)특무”, “조국 배반”, “매국역적”, “반혁명 폭란” 등이 유난히 많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기록은 문혁이 끝난 뒤 20년이 지난 1998년의 시점에서 창작된 리혜선의 장편소설 『빨간 그림자』에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었다.

《심양군구에 보내는 급전은 이렇게 함시다》

비서가 급급히 받아적었다.

《지금 연길시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다. 그들은 하북을 불태우고 하남으로 돌진하고 있는데 량식창고를 충격하고 기름창고를 포위했다. 연길시를 피로 물들이고 도문관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실한데 좌파조직에 무기가 없어 여러번 실패했고 지휘할 능력마저 없다.》<sup>19)</sup>

위의 인용문은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연변 조선족의 ‘조국 배반’ 사건에 대한 사실적 묘사이다. “연길시를 피로 물들이고 도문관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상부에 보고되는 소위 연변 조선족의 ‘조국 배반’ 행위에 대한 보고는 문혁 당시 북중 갈등의 악화 속에서 조선족이 겪고 있는 심각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밖에서 물통소리가 왈랑질랑 들려왔다. 열린 문으로 한족들이 목을 깃속거리며 욕을 했다.

《당신들 조선사람들이 전 연길시내 수돗물에 다 독약을 탔다는데 왜 그렇게 양심이 없는 짓을 하는거요?》

《당신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고향으로 도망치려고 한다던데 정말이요?》

《당신네 정말 양심이 없소. 중국이 없으면 당신네 어디서 살겠소? 남조선은 자본주의나라지, 조선 두 소문에 수정주의라던데, 당신네 어떻게 이 사회주의나라를 배반한단 말이요? 키워준 개 발뒤축 문다더니!》<sup>20)</sup>

문혁 당시, 연변에서 한족과 조선족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며 중국인들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조선족을 바라보고 있고 조선족에 대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같은 시기, 북한 내 화교들 역시 북한

16) 이종석, 위의 책, 240~241쪽 참조.

17) 박종철, 위의 논문, 109쪽.

18) 오태호 외, 『풍랑』, 민족출판사, 1993.

19) 리혜선, 『빨간 그림자』, 연변인민출판사, 1998, 202쪽.

20) 리혜선, 위의 소설, 204~205쪽.

당국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었다. 1963년 8월, 조선보통교육성 제17호령 결정에 따라서 중국인 소학교, 중국인 중학교의 교재를 모두 북한 교육성에서 발간한 교재로 동일화했으며, 수업도 조선어로 진행하였다. 1966년 모든 화교학교의 교장을 북한 사람이 맡게 되었다. 배급을 축소하는 등 화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sup>22)</sup> 1966년부터 1968년까지 길림성의 도문·집안 및 장백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한 화교는 모두 6,285명이다.<sup>23)</sup> 북한과 중국 관계의 악화 속에서 중국의 조선족과 북한의 화교들은 모두 심각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혁이 종료되었을 때, 조선족에게 가장 절박하게 대두된 문제는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바로 중국 조선족의 과거 정리 작업 즉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의 역사 만들기 내지 조선족의 중국 역사에의 편입하기와 직결된 것이었다.

이러한 정리 작업, 편입 작업은 새중국의 건국 초기에 이미 한차례 진행되었고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민족정풍”운동의 와중에 조선족은 건국 후, 처음으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족 문학사에 나타난 1950년대의 혁명서사가 새중국 건국 초기, 조선족의 중국의 국민적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면, “민족정풍”운동 이후 나타난 1960년대 초의 혁명서사는 바로 “민족정풍”운동의 와중에 겪게 된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자<sup>24)</sup> 조선족과 한족의 민족적 갈등에 대한 봉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의 한계성 내지 취약성, 불완정성은 문혁을 겪으면서 막바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문혁은 조선족에게 보다 확실한 과거에 대한 정리와 역사에 대한 응시를 요구하였다. 1980년대의 혁명서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것은 1980년대 혁명서사에 부과된 사명이자 과업이었다.

### 3. 은폐된 기억 호출하기와 새로운 민족관계의 구축

윤일산<sup>25)</sup>의 『포효하는 목단강』은 조선족의 과거 정리와 역사 재구축이라는 1980년대 혁명서사의 과업을 가장 뚜렷하게 체현한 소설이다. 소설에는 새중국 건국이후 80년대에 이

21) 여기서는 문혁 중, 연변의 조선족들이 북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겪은 심각한 민족적 수난과 연변지역에서 한족과 조선족 간의 민족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 연변 이외의 중국 전역에서 벌어졌던 것이었다. 다만 연변은 조선족의 집거지로 그러한 갈등이 보다 집중적으로 체현된 것으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22) 문화대혁명시기 북한의 화교에 대한 차별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것. 이승엽, 『북한화교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표도르 쟈르치즈스키, 『북한화교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년 참조할 것.

23) 박종철, 위의 논문, 113~114쪽.

24) 이해영, 「60년대 초반 중국 조선족 장편소설에 나타난 민족의식의 내면화」, 『국어국문학』 157, 2011, 312쪽.

25) 지금까지 윤일산에 대한 본격적인 작가론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며 『포효하는 목단강』에 실린 ‘저자간력’이 전부이다. 이에 의하면 윤일산은 1943년 길림성 룡정현에서 출생, 1960년 길림성 연길시 2중 중퇴, 1969년부터 흑룡강성 녕안현에서 교편을 잡은 것으로 되어있으며 1980년대부터 창작에 주력하였다. 윤일산은 14세에 1957년부터 연변지역에서 벌어졌던 ‘민족정풍’운동을 목격하였으며 청년기에 초기의 연변 문혁을 목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포효하는 목단강』이 비록 광복직후, 북만지역 즉 흑룡강성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 창작의 내적 동기 속에는 연변지역 문혁 중, 조선족과 한족의 민족갈등과 조선족의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경험이 투사되었을 것이다.

르기까지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왔던 민족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동북 지역 한족과 조선족 간의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과 반목이 전편을 관통하고 있다. 그것은 일제 경찰과 그 앞잡이인 조선인 경찰 대 중국인 농민계층, 중국인 지주계층 대 조선인 농민계층, 중국인 농민계층 대 조선인 농민계층 등 다 층차, 다 차원으로 수렴되는 모순과 갈등이었다. 이 중, 중국인 농민계층 대 조선인 농민계층의 모순은 가난한 중국인 대 가난한 조선인 간의 모순으로 **기존의 조선족 소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이었다.<sup>26)</sup> 특히 이것은 중국인 지주 대 중국인 및 조선인 농민간의 모순, 중국인 농민과 조선인 농민의 단결과 우애 즉 가난한 조, 한 두 민족 인민간의 우애와 단결이라는 조선족 소설의 공식적인 틀을 일거에 깨뜨리고 가난한 조, 한 두 민족 인민간의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가난한 조, 한 두 민족인민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거에 놓인 것이 바로 일제의 ‘토지 수용령’이라고 소설은 고발하고 있다.

소설에는 기존의 조선족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제 식민지시기 만주국 농촌사회의 민족관계의 핵심적 위치에 놓여있던 일제의 ‘토지 수용령’의 현실적 모습이 거침없이 서사화된다. 당시 ‘만주국’에서는 ‘토지 수용령’에 의해 이민 용지라는 명목으로 토착의 중국인이나 일부 조선인의 토지를 헐값으로 매수하거나 강제로 빼앗아 일본 개척단과 신규 조선인들에게 분배해서 경작(주로 水田)하게 했거나 수전 경작 능력을 지닌 조선인들은 남겨두고 한족들만 내쫓은 뒤 그 마을의 모든 경지를 조선인들이 수전 경작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만주국의 이민 정책은 실상 식민지적 토지 수탈의 성격을 띠었고<sup>27)</sup> 이 과정에서 조선인 농민들은 중국인들로부터 토지를 약탈해간다는 비난을 듣고 있었다.<sup>28)</sup>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중국인들은 일방적인 피해자였다. 이에 비해 조선인 중에는 새로 토지를 획득한 부류와 토지를 빼앗기고 정든 고향에서 쫓겨난 부류로 갈렸다. 조선인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였던 셈이다. 이러한 일제의 ‘토지 수용령’과 그로 인한 만주국 농촌사회의 민족관계는 남한과 북한 및 조선족 문학 모두에서 철저하게 망각과 기피, 은폐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한국 작가 안수길이 만년에 만주 체험을 형상화한 소설 『효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sup>29)</sup> 『포효하는 목단강』에서는 이 은폐된 기억이 다음과 같이 본격적으로

26) 기존의 조선족 소설과 ‘만주’를 형상화한 한국소설은 대부분 중국인 지주와 이주 조선인 농민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조선족 소설은 대부분 민족갈등이 계급갈등으로 승화하는 구조를, 한국 소설은 중국인 지주 대 조선인 전체의 갈등 구조로 즉 조선인의 계층적 분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만주’ 체험을 재현한 대표적 한국소설인 안수길의 『북간도』 역시 청인 지주와 조선인 농민간의 모순을 다루고 있으나 이들 조선인 농민들의 계층적 분화는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들은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하나의 공동체로 묶인다. 즉 농민계층으로부터 친일자본가로 성장한 장치덕 가문과 독립운동가 자손을 둔 이한복 가문은 여전히 친밀한 우정을 유지한다.

27) 尹輝鐸,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韓國民族運動史研究』 제 27집, 2001.4, 212쪽.

28) 尹輝鐸, 『滿洲國:植民地의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해안, 2013, 365쪽.

29) 소설에서는 스물여덟 살의 ‘만주국’ 조선문 신문기자였던 ‘나’가 “이런 땅을 수용령으로 몇 푼 안 받고 남에게 주다니!” 하고 일본인 무장 개척단에게 헐값으로 땅을 빼앗기게 된 조선농민들을 위해 슬퍼하다가 방천 옆의 백양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중국인의 머리 즉 ‘효수’를 보는 순간 그것이 일본인의 땅도 조선인의 땅도 아닌 중국인의 땅임을 깨닫고 반성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나타난다. 『효수』이전의 작품에서 안수길은 ‘만주국’을 민족화합의 장(‘만주국 시기’ 작품)으로 환원하거나 혹은 조선인의 저항과 수난의 공간(『북간도』 등 해방 이후의 작품)으로 환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영, 「월남작가 안수길의 “만주” 기억과 재현」, 『어문론총』 65권 0호. 2015 pp.297-327 참조.

호출된다.

실로 장쇼원의 경우를 두고보면 그럴법도 한 일이었다. 동경성경찰서 일본인 서장이 조선인인 사법계주임과 조선인인 동경성역전 헌병대특무 리호따위들과 짜고들어서 조작해낸 발해보사건의 직접적 희생물이 바로 장쇼원이었다. 그 사건이란 바로 목단강물을 목단강동안의 별로 끌어들이는 큰 보도랑-발해보를 서남으로부터 서북으로 빼고 발해보 량권의 중국사람들의 밭을 강제로 빼앗아낸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발해보 량권은 대부분이 저습지인 미개간지였으나 좀 두둑진 곳에는 중국사람들의 밭도 적지 않았다. 물론 밭은 대부분은 만척회사의것으로서 소작을 준것이였으나 개별적으로는 자작농들의 개인밭도 있었다. 자작농들의 개인밭속에는 장쇼원네의 밭이 2쌍이나 있었다. 경찰서장은 만척회사와 교섭하여 발해보 량권의 소작권을 거두어들여 후에 조선에서 건너온 조선사람들을 주어 논을 풀게 하는 한편 자작농들을 강박하여 발해보 량권의 밭을 헐값으로 팔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사람들은 일떠나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선백성들의 경우도 그닥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소작지는 얻었다 해도 엄청난 소작료를 물어야 했으니 득을 볼것은 없었다. 그러나 소작권을 때웠거나 땅을 빼앗긴 중국사람들은 조선사람모두를 원수로 치부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것은 조선사람들이 없었다면 소작권을 때우고 땅을 빼앗기지 않았을테니말이었다. 장쇼원도 그중의 한사람이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타번지는 원한의 불길은 일본인서장과 사법계주임은 더 말할것없고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향해지고 있었다. ... 하여 장쇼원은 살길을 찾아 부득불 고향을 등지면서도 어느때든 되돌아와 서장을 비롯하여 왜놈들과 사법계주임을 비롯한 조선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맹세하였던 것이다.(『포효하는 목단강』, 28~30쪽)

위의 인용문은 일명 ‘발해보 사건’으로 명명되기도 하는 목단강 동안 동경성 지역에서의 일제의 ‘토지 수용령’에 의한 중국농민들의 피해와, 그것이 이 지역 조선인과 중국인들 사이의 뿌리 깊은 민족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되었음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역사서의 기술과 대체로 일치하다. 여기서는 ‘후에 건너온 조선인’ 즉 신규 입식한 조선인들이 일제의 ‘토지 수용령’에 의해 토지를 획득하는 과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또한 그것의 결과는 가난한 중국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게 된 원인을 조선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일본인 서장과 사법계 주임과 함께 원래 그들의 소작지였던 땅을 새로 소작하게 된 가난한 조선인 농민들 모두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존의 역사서 내지 문학작품에 드러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한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사람들이 순순히 밭을 내놓기보다 들고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랐던 서장은 일이 뜻대로 번져져나가지 사법계주임인 조선인경찰을 앞에 내세웠다.

사법계주임은 일본인서장이 뒤심으로 되어주는데다가 이 기회에 기름진 땅을 헐값으로 손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되는 판이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사법계주임은 더욱 미쳐날뛰게 되었다. 하여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문곡직하고 잡아들여다가 개패듯 해댔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판이라 자작농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땅을 팔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거저 빼앗기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팔아야만 하였다. 이렇게 빼앗아낸 땅들은 사법계주임이며 리호따위들의 손아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동경성일대에서 한다하는 부자로 되었다.

조선인 백성들의 토지 획득 과정에 일본인 경찰서장과 조선인인 사법계 주임과 리호 등 세력들이 적극 개입하여 중국인들에게 억압과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여기서 일본인 경찰서장은 ‘발해보 사건’의 전 과정을 획책하고 주도했으나 본인은 전면에서 나오지 않고 조선인 경찰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중국인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조선인 사법계 주임이나 헌병대의 조선인 특무 리호 등은 “일본인 서장이 뒤심으로 되어주는 데다가 이 기회에 기름진 땅을 헐값으로 손안에 넣을 수가 있”였으므로 이 일에 적극 나서며 이렇게 빼앗



아닌 땅들은 조선인 사법계 주임이나 리호 등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만주국’에서 조선인 중의 일부 세력이 식민세력의 전면에 나섰던 의사식민주의자이기도 했던 역사적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순순히 받을 내놓기보다 들고일어나기를 은근히 바랐던 서장은 일이 뜻대로 번져져가자” 라는 대목은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이 일본인 경찰서장이 의도했던 바이며 일제의 민족 이간정책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이로써 일제의 ‘토지 수용령’은 기존의 역사서의 서술과는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즉 기존의 역사서는 일제의 ‘토지 수용령’이 일제가 자국 혹은 식민지 조선 백성을 ‘만주국’에 입식시키기 위해 시행한 이민정책의 일환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만주국’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일제의 고의적인 이간책으로 구사되고 있다. 동시에 조선인 백성들이 비록 소작지를 얻었으나 “엄청난 소작료를 물어야 했으니 득을 볼 것은 없었다”라고 조선인 백성들의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이기도 한 애매모호한 처지를 변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들과 일본인의 앞잡이로 충당되었던 조선인 식민세력들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일제의 ‘토지 수용령’이 실은 ‘만주국’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족갈등을 격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이간정책이며 또한 조선인 중 일부 친일세력이 일제의 식민권력에 편승해 중국인들의 토지를 빼앗는데 앞장섰음을 보여주었다. 일제의 ‘토지 수용령’은 실은 대다수의 조선인 백성들과는 무관하며 친일 조선인 세력들과 조선인 백성들을 구별하여 바라볼 것을 주장하였다. 이로써 가난한 중국인 백성들과 조선인 백성들 간의 뿌리 깊은 민족갈등과 반목은 실은 일제의 민족이간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서로간의 오해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광복직후, 일제 식민지 시대에 시작된 이러한 민족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부추인 것은 바로 친일 경찰 및 위만군 출신의 중국인 토비들과 친일 어용조직인 협화회 및 산림경찰대 십장 출신의 소위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이다. 친일 경찰 출신 중국인 오완린의 조선인에 대한 보복심은 처음에는 사법계 주임이나 이호 등 친일 조선인들에게 땅을 빼앗긴 개인적 원한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동경성 치안대 대장까지 되자 “보복심이 악성적으로 팽창되어 전체 조선인에 대하여 복수를 감행하려 하였”다. 따라서 “야욕도 한정없이 자라났는데” 이 기회를 빌어 “모든 조선사람들을 몽땅 내쫓고 그들이 개간한 토지와 재산마저 죄다 약탈하려는 것”<sup>30)</sup>이었다. 오완린이 기초한 “꼬리들은 재산을 몽땅 놔두고 조선으로 물러가라! 중국사람들이여, 단결하여 일어나라! 국민당 중앙군이 곧 온다!”<sup>31)</sup>라는 선동적인 뼈라는 광복직후 동북지역 중국인과 조선인들의 민족갈등이 일제의 ‘토지 수용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친일 반동세력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동경성에서 조선인 ‘민회’를 세우고 회장이 된 협화회 출신 친일 조선인 백호남은 오완린에게 맞서서 “동경성내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을 몰살시키려 하니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손에 무기를 들라고 선동”했으며 “자위대를 총동원하여 조선거민구역과 린접된 한족거민구역을 엄밀히 봉쇄하게 했다.”<sup>32)</sup> 조선인 ‘자위대’ 대장이 된 박도깨비는 일제시기 왜놈병참기지의 십장으로 있으면서 중국인들에게 진 혈채가 있었으므로 중국사람들의 동정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소위 조선인을 보호하고 조선인의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실은 일제시기 식민세력의 앞잡이로 중국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진정한 목표가 조선인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

30) 윤일산, 『포효하는 목단강』, 연변인민출판사, 1986, 63쪽.

31) 윤일산, 위의 책, 64쪽.

32) 윤일산, 위의 책, 64쪽.

와 일제시기 중국인들에게 지은 죄로 인한 중국인들의 보복에 대한 방어, 그리고 복잡한 시  
 국에서 한몫 챙기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위만군 출신의 토비 마희산 역시 조선인과 중국  
 인 간의 이 역사적 갈등을 악용하여 동북지역의 한족들을 자기 수하에 모으려고 시도한다.  
 “때가 되면 한두사람이 아니라 온 룡도의 조선사람들을 죄다 목을 매다는것도 서슴지 않을  
 마희산이었다. 그의 이 도살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사람들을 제 수하에 끌어낼수만  
 있으면 다였다”<sup>33)</sup>라는 대목은 광복직후, 북만지역에서 조선인 마을들에 대한 토비들의 무차  
 별한 습격과 약탈, 살인 등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측  
 으로 쏠려가는 한족군중을 멈춰세우거나 돌려세우”기 위해 마희산은 심지어 “조선부대가 한  
 족군중을 도살하게 할 지독한 흥계”를 꾸미는 것도 불사한다.<sup>34)</sup> 마희산이 내건 한족을 위한  
 다는 민족주의 정책의 허위성과 기만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일제시기 헌병대 특  
 무 출신인 친일 조선인 리호 역시 마희산과 마찬가지로 민족갈등을 악용하여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동족인 조선인에 대한 탄압과 살해를 마다하지 않는다.

초기에 이런 민족갈등의 근원을 파헤치고 민족갈등을 조장하는 친일 출신의 토비, 조선인  
 ‘민회’ 책임자 등의 음모를 까밝히고 민족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측은 목단강시 쏘련홍  
 군위수사령부의 조선인 출신 부사령원이었다.

“...여러분, 조, 한 두 민족인민들의 우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 만주를 강점하였을 때, 조, 한 두 민족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어깨걸고  
 심산밀림을 집으로 삼고 발톱까지 무장한 왜놈들과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런 우리 두 민  
 족인민이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한단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한단말입니까?“  
 (『포효하는 목단강』, 66쪽)

조선인 출신의 쏘련홍군 부사령원의 이 연설은 민족모순과 갈등으로 충만된 일제 시기  
 ‘만주’의 역사를 조, 한 두 민족 인민이 어깨 결고 싸운 피어린 투쟁의 역사로 환원한다. 일  
 제에 편승하여 중국인을 억압한 친일 조선인세력들도 있지만 ‘만주’에서 일제의 침략에 맞  
 서 항일투쟁에 적극 참가하여 피 흘려 싸운 조선인 투사들이 많음을 상기시키면서 공동의  
 항일투쟁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조, 한 두 민족은 단결 가능한 공간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다. 동시에 조, 한 두 민족 인민의 공동항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민족갈등을 조장  
 하는 세력은 바로 “어제날엔 왜놈의 개가 되었다가 오늘날엔 민족주의를 부르짖고나서는자”  
 들, 즉 친일파 세력들임을 폭로하였다. ‘관내의 로팔로’ 즉 팔로군 부대에서 파견되어온 공  
 산당 간부와 팔로군 간부들 역시 토비들과 친일반동세력들의 민족 이간책과 음모를 폭로하  
 고 민족갈등의 국면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이들의 적극적인 지도 밑에, 그리고 실제로 가  
 족을 동족의 친일파 리호에게 잃은 조선족 전사 용호는 드디어 민족반목의 음모를 간파하고  
 각성하며, 마찬가지로 일제와 친일토비 마희산의 농간에 넘어가 조선족을 철천지 원수로 치  
 부하며 토비 무리에 가담하여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장쇼원을 구출하기 위해 토비 무리에  
 인질로 남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구출된 장쇼원은 민족반목의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군에 가담하여 적극 싸우며 지난날의 그와 마찬가지로 민족반목의 음모에 기만당한 많  
 은 한족 군중들을 교육하여 각성하도록 한다. 대학생 출신이자 동경성 조선족 부대 교도원  
 인 천세준은 반동세력들의 민족 이간책을 폭로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장쇼원을  
 구하기 위해 서슴없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북지역에서 일제와 친일

33) 윤일산, 위의 책, 168쪽.

34) 윤일산, 위의 책, 466쪽.

반동세력들의 기만책에 의해 만들어진 조, 한 두 민족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은 해결의 국면을 보이며 새로운 민족관계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장쇼원과 마찬가지로 조선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토비가 되었다가 구출된 송위민이 토비 숙청 싸움에서 부상당한 뒤, 장쇼원에게 보낸 편지는 말 그대로 광복직후, 일제와 친일반동세력들의 민족 이간책에 기만당한 한족들에 의해 애매한 조선족 백성들에게 가해진 엄청난 폭력과 탄압에 대한 반성이며 동북해방전쟁에서 조선족들의 공헌과 기여에 대한 긍정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반성과 긍정이 조선족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토비가 되었던 한족 전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극히 의미심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토비 출신이었던 한족전사 송위민에 의해 “지휘부에서는 조선부대가 보복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근심하였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중에는 동안현성에 집을 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시다. 만약 그들이 보복적으로 나온다면 사문동비도들이 바라는대로 조만간에 한조 두 민족간의 싸움으로 번져져갈것이며 민족싸움이 계급싸움을 뒤덮어버려 사태는 수습할수 없게 될것이 아니겠습니까? ..... 하지만 우리들은 조선동지들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였습니다. 며칠후에야 동안현성으로 들어온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만 한족주민들의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시다. 싸움마당에서는 범같이 사나왔던 그들이었지만 또한 그만큼 혁명규률을 철같이 지킬줄 알았습시다.”<sup>35)</sup>라고 말해지는 대목은 일제에 의해 조선족에게 역사적으로 들쭉거리진 민족갈등의 멍에와 오해 및 편견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민족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선족의 피타는 노력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기존 문학작품에서는 조, 한 두 민족의 우애로만 부각되면서 의도적으로 망각되고 기피되고 터부시되던 가난한 조, 한 두 민족 백성들 간의 뿌리 깊은 민족갈등에 대해 대담하게 고백하며 그 문제의 핵심인 일제의 ‘토지 수용령’을 호출한다. 또한 그러한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서 일제의 ‘토지 수용령’의 본질적 핵심이 조, 한 두 민족 인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기 위한 것에 있음을 고발하며 중국혁명에서의 조선족의 기여를 통해 새로운 민족관계의 구축을 전망한다. 이러한 은폐된 기억의 호출과 고백 및 재구성을 통해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 덮어버렸던 조선족의 과거문제 청산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여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광복직후 중국에 잔류했던 조선족의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보다 완벽한 탈식민 작업이 진행된다.

#### 4.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조선인의 혁명적 연속성

『포효하는 목단강』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갈등의 문제와 함께 광복직후, 동북지역의 특수성 즉 정권 부재기의 혼란과 복잡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녕안현경내에 쓰련홍군이 나타난 것은 8월17일이였다.....

당시 녕안현경내에는 중국공산당조직이 없었다면 국민당조직도 없었다. 사회치안은 극도로 혼란한 형편에 처하였다. 과도기의 임시정부의 건립은 절박한 문제로 나섰다.(『포효하는 목단강』, 45쪽)

근 14년간이나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괴뢰 만주국으로 존재했던 동북에서는 1939년경에 이르면 일본군과 만주국군의 협력으로 ‘비적’ 탄압이 예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최후의 무장 항일세력인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連軍)은 1939년 겨울부터 한만 국경에서 끝까지 추격되었다가 꿩먹고 닭잡는 상황에 이르며<sup>36)</sup> 동북항일연군의 지도자 주보중과 후일 북한지도자가 될 김

35) 윤일산, 위의 책, 541쪽.

36)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80쪽.

일성은 이 추적에서 살아남아 쏘만국경에서 소련 영토로 넘어갔다. 동북은 광복 당시, 동북으로 진주한 소련홍군에 의해 해방되었으며 관내에 있던 공산당과 국민당의 영향력 모두 미치지 못하는 정권의 공백 지대였다. 소련홍군이 내정불간섭의 원칙과 지방 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과도기의 정권 수립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지방의 각 종 친일 반동세력들과 조선인 친일 민족주의세력들이 경쟁적으로 조직을 건립하였으며 조, 한 두 민족의 민족갈등을 부추이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항일련군5군의 지하교통원이었던 조선인 혁명가 강찬혁은 조선인 민주대동맹을 성립하고 조선인 친일 민족주의세력들에 맞선다. 일제말기 일본군과 ‘만주국’군의 가혹한 탄압과 끈질긴 추적을 피해 소련경내로 넘어갔다가 동북으로 진군하는 소련홍군과 함께 돌아온 동북항일련군의 간부들과 중국공산당 동북국에서 파견한 공산당 간부들, 그리고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팔로군 출신의 공산당 간부들은 바로 강찬혁이 성립한 조선인 민주대동맹과 조선인 무력인 고려 경찰대에 기반을 두고 동북에서의 공산당의 역량을 확대해나가고 부대를 확충하며 정권 수립을 위해 노력한다.

① 강진강동지가 녀안현성에 파견되어오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동만총성의 소재지인 목단강시에도 원 항일련군 5군1사의 도옥봉을 비롯한 간부들이 왔었다. 간부들이 목단강시에 왔을 때 목단강시에는 이미 목단강시 조선인민주대동맹이라는 조직이 나왔었다. 18세이상 되는 조선족군중들은 거의다가 이 조직에 망라되었는데 자기의 무장조직인 고려경찰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간부동지들은 오자부터 민주대동맹에 발을 붙이고 당조직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는데 민주대동맹의 주요책임자들은 선후하여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였다. 하여 민주대동맹은 더욱 튼튼한 중국공산당의 외각조직으로 다져졌다.

② 립시성위가 건립되자 먼저 착수한 것은 무장건설과 정권탈취였다 그들은 민주대동맹산하의 고려경찰대를 군구경위련으로 개편하고 확대함과 아울러 목단강군구사령부의 간관을 내걸었다

③ 《동지들의 사업정황에 대해서 강진강동지로부터 소개를 자상히 받았습니다. 당조직도 없는 정황 하에서 자각적으로 뭉쳐일어났고 지금은 정권기구까지 세우고 인민의 군대까지 조직하였으니 실로 용이하지 않은 일입니다.》

위의 인용문들은 광복 직후, 동북지역에 미치지 못했던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이, 조선인 혁명가들이 조직한 조선인민주대동맹에 기초하여 동북지역에 발을 붙이고 그 영향력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①은 동북항일련군의 간부들과 중공중앙, 팔로군의 간부들이 동북에 오기 전에, 동북지역에는 이미 조선인 혁명가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조선인민주대동맹이 있었고 여기에는 18세이상의 조선족 군중들이 모두 참가하고 있었으며 자기의 무장조직까지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②는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이 조선인 혁명가들이 조직한 무장조직인 고려경찰대를 기반으로 확군사업을 진행했음을 보여준다. ③은 공산당 조직도 없는 정황 하에서 조선인 혁명가들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혁명투쟁에 일어나 공산당의 정권기초를 수립한 것에 대한 중공중앙과 팔로군의 고도로 되는 긍정과 평가이다. 이러한 서술들은 중국공산당 및 팔로군의 절대적 영도와 이에 대한 조선족의 수동적인 수용이라는 즉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서”라는 기존 역사서와 문학작품의 서술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시 동북지역 국내해방전쟁에서 조선인의 공산당 영도의 선택과 수용, 혁명에 대한 공헌과 기여를 다룬 리근전의 장편소설 『범바위』는 1962년의 초판본과 1986년의 수정판 모두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대한 서위자촌 농민들의 수용 과정을 일방적인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조선족 농민들의 수용의 과정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포효하는 목단강』 역시 기존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중국공산당과 조선족의 관계를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로, 중국공산당의 모범적 역할과 이에 대한 조선족의 따라 배우기 등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동북지역 국내해방전쟁에서

조선인 혁명가들의 공헌과 기여 특히 그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효하는 목단강』은 조선족의 혁명성과 대비되는 동북지역 한족 군중들의 낙후성과 관내지역과 동북지역 한족들의 역사적 단절성을 뚜렷이 부각하고 있다.

① 《그렇소, 비극이요!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모르고있소. 그런데다 왜놈들이 장기간에 걸쳐 민족리간을 도발한데서 중국사람들을 위한다는 방패를 내건 마희산의 기편선전에 더욱 쉽사리 넘어갈수 있는것이요. 마희산이 한 개 려나 되는 방대한 병력을 그처럼 손쉽게 끌어모아 진공전을 벌릴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이 점을 실증해주고있는것이요...》 (『포효하는 목단강』, 214쪽)

② 《너도 중국사람이거든 <꼬리>들에게서 물러나라!》

《...》

만약 관내에서였다면, 중국사람들끼리 싸우는 마당이였다면 합화가 반응을 일으켰을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는 관내가 아닌데다가 적측은 마희산의 기편술에 속아넘어가 조선사람들을 가증한 적으로 알고있는 사람들이었으니 조교도원의 말이 귀속으로 들어갈 리가 없었다.(『포효하는 목단강』, 219쪽)

광복 당시, 초기에, 동북지역 한족 들 속에서의 공산당 기반의 취약성, 그리고 오랜 일제의 식민통치와 토비들의 반동선전으로 인한 이 지역 대다수 한족 백성들의 공산당과 공산당 정책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②는 관내지역과 동북지역 한족들의 역사적 단절성을 보여준다. 공산당, 팔로군과 조선족 대 국민당, 토비와 동북지역 한족이라는 대결구도를 보여줌으로써 동북지역 해방전쟁에서 공산당과 팔로군이 초기에 상당부분 조선족의 혁명적 적극성과 열의에 의거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조, 한 두 민족인민의 우의와 혁명적 적극성이라는 기존 작품의 구도와는 매우 다른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조선족의 혁명적 적극성과 주체성, 자발성의 원천을 소설은 조선족의 혁명적 연속성, 특수한 위치 및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 정책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

우선 소설은 조선족의 혁명적 적극성과 주체성의 근원이 조선인의 혁명적 연속성과 그로 인한 혁명적 필연성에 있다고 보았다.

조선족부대의 확충을 위한 공작은 강찬혁이 맡은 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들에서도 대단히 순조로웠다. 아니, 전 동북의 조선족마을들에서 모두 이러하였다고 말해야 적절할 것이다. 남부여대하고 동북에 와 자리잡은 조선족인민대중은 강도 일제의 등살에 못이겨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섰던 것만큼 많거나 적거나 반일사상은 거의 모두가 품고있었다. 일찍 그 선각자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세인을 놀래우는 비장한 사시를 엮어놓았다. 할빈역전에서 침략의 괴수 이또히로부미를 쏘아눅히고 그 배때기를 딛고 서서 "조선독립 만세!"를 피타게 웨친 안중근의사거나 상해홍구공원에서 천황의 생일과 일제의 상해공략을 경축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진 왜놈들의 주석단에 보은병폭탄을 던져 일제의 룡군대장 시라가와를 저승으로 보낸 윤봉길과 같은 의사들이 좋은 실례로 되고 있다.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선족인민대중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반일혁명투쟁에 쫓기하여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나가는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는바 동북항일련군에서 핵심적역량으로 되었다.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과 역량상의 현저한 차이, 좌경로선의 피해 등으로 하여 그 대부분이 장렬하게 희생되었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혁명의 불씨는 조선족인민대중과 함께 살아남았었다. 일제가 패망하고 동북의 광활한 대지우에 자유해방의 종소리가 울리자 조선족인민대중의 혁명적 적극성은 전례없는 고조를 이루었다.(『포효하는 목단강』, 129~130쪽)

위의 인용문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조선인의 중국 동북으로의 이주,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등 반일선각자들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반일투쟁, 1930년대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동북에서 벌어진 조선인들의 피어린 반일투쟁 등에 대해 역사적으로 회고하고 있다. 일제의 식민수탈에 의한 동북으로의 강제 이주의 역사적 경험과 반일투쟁의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하여 동북의 조선족은 원천적으로 혁명에 대한 적극성과 열의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조선족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의해 수행된 1930년대 동북항일투

쟁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것, 조선족이야말로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가장 마지막까지 일제에 항거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였던 동북항일련군의 핵심역량이었다는 것은 동북의 항일투쟁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조선족의 혈연적 관계를 잘 보여주며 이러한 관계가 광복 이후, 동북해방전쟁에서 공산당 이념에의 동조와 선택이라는 조선족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으며 조선족으로 하여금 망설임 없이 공산당 편에 서도록 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광복 직후, 공산당과 팔로군의 영향력이 아직 동북에 미치지 전, 친일반동세력들의 준동에 대항하여 공산당의 외각조직인 조선인민주대동맹을 세우고 무장대오까지 건설한 강찬혁은 “바로 항일련군 5군의 지하교통원이었”으며 “항일련군 5군이 다른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떠나면 곳으로 떠나가버리 후, 신분을 기이고 이곳에서 소작살이로 나날을 보내면서 혈전의 길에 나선 투사들이 붉은기를 펴며 날리며 돌아오기를 목마르게 기다렸”<sup>37)</sup>다는 것이다. 강찬혁이 있음으로 하여 동북지역 조선족은 막바로 항일련군 5군과 연결되며 혁명적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항일련군 5군이 어떤 부대인가? 항일련군 5군은 중공만주성위 군위서기 후보중이 1935년 친히 건립한 항일대오이며 동북항일련군의 핵심역량이자 최후까지 항전을 견지한 부대이다.<sup>38)</sup> 강찬혁의 동생 셋이 항일련군 5군에 있었고 동북항일련군의 총 책임자인 후보중 장군이 광복 직후, 소련경내에서 동북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강찬혁을 찾고 있었다는 것<sup>39)</sup>은 바로 동북지역에서 조선인 혁명가들의 역할과 위상 및 그들이 동북지역 혁명의 핵심역량이자 중국공산당의 투쟁 기반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며 조선족의 혁명적 연속성과 필연성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광복 직후, 동북지역 조선인의 혁명적 적극성과 주체성, 공산당 정책과 이념에의 동조와 선택은 그들 자신의 특수한 처지로부터 생긴 자기보호의식과 그들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 정책의 차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조선족군중들에 대한 공작은 그 진전이 빨랐고 순리로왔다. 그것은 마희산이 추행한 민족적대시로 하여 조선족군중들은 생존을 위해서도 일떠나야 한다는 자위의식을 갖고있었고 또 실지로 그렇게 했던것이다. 그리고 최악이 큰 악질분자들은 언녕 외지로, 남조선으로 달아나버린데다가 그 잔여가 조직했던 민회가 강찬혁 등에 의해 무너지자 더는 계급적자들의 조직적인 책동이 없었다. 이러한 특수성들에 강찬혁 등의 정력적인 활동이 합쳐져 군중의 각성은 놀라운 속도로 제고되었다. 하여 조선족 군중들은 동경성내에서뿐만아니라 편벽한 마을들에서까지도 충분히 발동될 수가 있었다. (『포효하는 목단강』, 436~437쪽.)

이처럼 광복의 시점에서 동북지역 조선인 백성들에게 공산당에의 동조와 혁명에의 열의는 이념적 차원이 아니라 생존적 차원의 것이었으며 생존본능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생존본능과 직결된 이들의 혁명성은 또한 광복 직후, 동북지역 조선인 백성들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 정책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되어 조선사람들이 당신들의 원수란말입니까? 그들중에 절대다수는 지난날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험벗고 굶주리던 사람들입니다. 수천수만으로 헤아리는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일제 침략자를 쳐부수는 가렬한 싸움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원수는 조선사람이나 한족사람가운데 있는 한줌도 못되는 민족반역자들입니다. ...그자들이 중국사람들을 위한다는 기발을 내걸고 조선사람들을 소탕한다고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천당을 세우기 위해 당신들을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한것입니다. ...”(『포효하는 목단강』, 183쪽)

37) 윤일산, 위의 책, 19쪽.

38) 劉文新, 『東北抗日聯軍-第5軍』,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39) 윤일산, 위의 책, 83쪽.

관내에서 파견되어나온 팔로군 출신 조교도원이 토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교육은 광복의 시점에서 동북지역 조선인 백성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국공산당은 절대다수의 조선인은 가난한 사람들로서 단결 가능한 인민의 범주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과 일제의 식민권력에 편승했던 소수의 의사식민주의자들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일제와의 투쟁에서 피 흘려 싸운 조선인들의 영웅한 혁명정신과 중국의 항일투쟁에서의 그들의 업적과 공헌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있다. 실제로 동북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과 국공내전을 앞둔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모두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귀환과 잔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공산당은 동북지역 조선인의 현지 잔류를 적극 유도했다. 이에 따라 중공중앙 동북국은 1945년 9월, “화북지역에서 항전을 전개하고 있는 의용군을 제외한 동북지역의 조선민족은 중국 경내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漢族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여야 한다”고 선포하였다.<sup>40)</sup> 이에 반해 국민당은 조선인을 ‘적국민’인 일본인과 크게 구별하지 않은 채 전부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행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 조선인을 전부 송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선인의 처우 문제와 재산 및 산업 처리, 또한 친일성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지방당국은 한인과 일본인을 크게 구별하지 않은 채, 敵國民내지 포로에 준하여 처리하였다.<sup>41)</sup> 동북지역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의 이러한 정책적 차이는 광복 직후, 토비들의 무차별한 습격 내지 약탈과 살인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절대다수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의 자기보호의식 및 생존본능과 연결되면서 그들로 하여금 공산당 편에 서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후, 동북해방전쟁의 와중에 동북에 잔류한 대량의 조선인의 지지를 획득하여 근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루어진 중국공산당의 토지개혁정책으로 이한 조선인 백성들의 토지 획득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확고하게 공산당을 따르게 했던 것이다.

## 5. 결론

이상에서 본고는 윤일산의 『포효하는 목단강』을 중심으로 경계의 삶과 국민 되기의 노력으로서의 1980년대 혁명서사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1980년대 혁명서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개혁개방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서 문단의 역류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혁명서사가 대거 출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포효하는 목단강』에는 기존의 문학작품에서는 인민의 범주로 수렴되면서 단결과 우애로만 표상되던 동북지역 가난한 조, 한 두 민족 간의 관계가 뿌리 깊은 민족갈등으로 전면에서 드러나며 이러한 민족갈등의 근원이 일제의 “토지 수용령”에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소설은 일제의 ‘토지 수용령’이 단순히 일제가 자국 혹은 식민지 조선 백성을 ‘만주국’에 입식시키기 위해 시행한 이민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만주국’에서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 사이의 민족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일제의 고의적인 이간책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일제의 민족이간

40) 그러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각 지방에서는 크고 작은 민족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김춘선, 「재만 한인의 국적 문제 연구」, 『귀환과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삶』 (이해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02), 경진출판사, 2011, 33면; 이해영, 「중국조선족의 선택과 조선족 간부들의 역할」,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4, 295쪽.

41) 장석홍,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 성격」, 『귀환과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삶』 (이해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02), 경진출판사, 2011, 56~57면; 이해영, 위의 논문, 289쪽.

책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북에서의 조, 한 두 민족인민의 공동항일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공유와 중국공산당 및 팔로군의 올바른 영도, 그리고 동북해방전쟁에서 이러한 역사적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선족의 영용한 투쟁과 기여이다. 이러한 은폐된 기억의 호출과 고백 및 재구성을 통해서 새중국 건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로 대두되어왔던 민족문제와 모호했던 과거에 대한 확인과 정리가 이루어지며 광복직후 중국에 잔류했던 조선족의 일제 식민시대에 대한 보다 완벽한 탈식민 작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거문제에 대한 청산과 함께 『포효하는 목단강』은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이 지역에서 조선인의 혁명적 주체성과 자발성 및 연속성을 보여주었으며 동북해방전쟁에서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이 그 초기에 상당부분 조선족의 혁명적 적극성과 열의에 의거하여 발을 붙였음을 보여주었다.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하여 관내지역 한족들과 동북지역 한족들 사이에는 역사적 단절성이 이루어져 있으며 관내지역 출신인 중국 공산당과 팔로군은 동북지역 한족들 속에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데 그러한 한계를 동북지역 조선족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투쟁에 의거하여 극복하였다. 이러한 조선족의 혁명적 적극성과 주체성, 자발성의 원천은 항일련군 5군의 핵심역량으로 표상되는 조선족의 혁명적 연속성, 광복의 시점에서 토비들의 발호로 인한 조선족의 민족적 위기라는 특수한 위치 및 동북지역 조선인에 대한 공산당과 국민당 정책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 및 팔로군의 절대적 영도와 이에 대한 조선족의 수동적인 수용이라는 즉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서”라는 기존 역사서와 문학작품의 서술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다.

이처럼 『포효하는 목단강』은 국내해방전쟁시기 동북 조선족의 혁명적 기여와 공헌이라는 지극히 유사한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기존 작품에서는 은폐 내지 망각의 대상이 되었던 가난한 조, 한 두 민족 인민들 간의 갈등과 일제의 “토지 수용령” 등을 전면 호출한다. 또한 관내지역 한족과 동북지역 한족의 단절성이라는 동북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공산당과 팔로군의 일방적 영도 하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협력자 내지 초기 기반이 되어준 동북 조선족의 혁명적 주체성과 적극성을 재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중국공산당 영도 아래서”라는 공식적 수사의 틀을 벗어난다. 그러므로 『포효하는 목단강』을 대표로 한 1980년대 중국 조선족의 혁명서사는 더는 1950, 60년대 조선족의 혁명서사가 지향했던 ‘중국화’의 전면적인 대두 내지 ‘유사건국서사 다시 쓰기’,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를 ‘다시 쓰기’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문혁의 와중에 중국 조선족 앞에 전면 재등장한 심각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문학적 대응이었다. 민족정풍운동과 문혁은 우리에게 광복직후의 조, 한 두 민족 간의 갈등의 문제와 일제의 ‘토지 수용령’은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음을 보여주었다. 즉 『포효하는 목단강』이 있음으로 하여 중국 조선족은 과거 기억의 맨 밑바닥까지 추적할 수 있었으며 그 곳에서 드디어 정직하게 자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비로소 조선족은 떳떳하게 역사를 마주할 수 가 있으며 오래된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980년대 중국 조선족의 혁명서사는 바로 은폐된 과거의 기억을 호출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조선족의 국민적 정체성을 재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민족의식의 최대의 확장을 통해 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한 그리고 굳건한 국민적 정체성을 재구하는 작업이었다.



## 기본자료

윤일산, 『포효하는 목단강』, 연변인민출판사, 1986.

## 단행본 및 논문

리혜선, 『빨간 그림자』, 연변인민출판사, 1998.

오탈호 외, 『풍랑』, 민족출판사, 1993.

尹輝鐸, 『滿洲國:植民地의 想像이 ینگ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 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이혜영, 『중국 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도서출판 : 중심, 2001.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9.

劉文新, 『東北抗日聯軍-第5軍』,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김춘선, 「제만 한인의 국적 문제 연구」, 『귀환과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삶』 (이혜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02), 경진출판사, 2011.

박종철, 「문화대혁명 초기 북중관계와 연변 조선족」, 『민족연구』 63권 0호, 2015.

서령, 「중국 조선족문학의 ‘중국화’ 문제-김학철과 윤일산의 전쟁제재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 33집, 2014. 5.

이혜영, 「중국조선족의 선택과 조선족 간부들의 역할」, 『한국현대문학연구』 45, 2015. 4.

\_\_\_\_\_, 「월남작가 안수길의 "만주" 기억과 재현」, 『어문론총』 65권 0호. 2015. 9.

\_\_\_\_\_, 「이태준과 『위대한 새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59권0호, 2016. 6.

尹輝鐸,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의 斷想」, 『韓國民族運動史研究』제27집, 2001. 4.

장석홍, 「해방 후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과 성격」, 『귀환과 전쟁, 그리고 동아시아인의 삶』 (이혜영 편,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연구소 총서 02), 경진출판사, 2011.,